

###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4월20일~10월20일)



올 봄, 정원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월 20일~10월 20일)가 순천만 일대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주박람회장에 조성되고 있는 도시숲의 모습.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제공>

# 시름일랑 잠시 내려놓고, 순천만 정원 거닐어볼까

72개국 세계 정원 조성... 호수정원·수목원·꿈의 다리 등 꾸며져

계절별 테마공연·전시 등 총 6495회 다양한 문화체험 마련도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1694~1778년)는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양의 유명 철학자와 학자들은 이처럼 정원을 거닐며 사색에 잠기거나 휴식을 취했다. 정원은 단순히 꽃과 나무가 자라는 곳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을 더욱 인간답게 해주는 치유와 위안의 공간이다.

올 봄, 순천만 일대에서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월 20일~10월 20일)가 펼쳐진다. 이번 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을 주제로 세계적 생태습지인 순천만과 풍덕동 일원 박람회장 등 11만2000㎡(33만 6300여 평) 부지에서 열린다.

정원박람회는 2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세계적인 환경축제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주관으로 지난 15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개최됐다. 순천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AIPH가 공인하는 A1·B1·A2·B2 등 4개 등급 행사 중 A1급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현재 박람회장에서는 참가국별로 전통양식의 정원을 조성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가장 큰 볼거리인 순천만 호수정원은 토목공사를 마치고 잔디 식재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근의 국제습지센터는 잔디언덕으로 조성되는 지상 2층 높이의 외관이 완전히 드러났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박람회 이전에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람회장은 56만4000㎡의 주박람회장과 23만3000㎡의 수목원, 10만5000㎡의 국제습지센터 등으로 꾸며진다.

이색 볼거리가 몰려 있는 주박람회장은 순천만 호수공원과 도시숲, 바위정원, 한상정원, 한방체험센터 등이 제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네덜란드·프랑스·중국·영국·태국 등 세계 10개국이 참여한 세계정원도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호주·인도·캐나다 등 11개국은 실외정원과 실내정원을 꾸민다.

공사가 끝나면 모두 72개의 정원이 순천만 일대에 생겨나게 된다. 박람회장은 전체 36만2863그루의 나무와 잔디 21만8000㎡를 심는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2만5000㎡ 크기의 호수정원은 순천의 강과 산을 연못과 섬 형태로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인 찰스 쟁스의 설계에 따라 토목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박람회장 서쪽에 마련된 수목원에는 한국정원과 편백휴양숲 등이 조

성돼 피톤치드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언덕에 오르면 박람회장과 순천만, 도심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박람회의 주제관 역할을 하는 국제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친환경 건축물이다. 국내 최초로 도로변과 옥상을 언덕으로 연결한 뒤 잔디를 깐 지붕건축 기법이 사용됐다.

건물 전체 에너지의 42%를 태양광과 지열로 공급하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이다. 세계 최초의 다리미술

관을 표방한 '꿈의 다리'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습지센터와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다리에 컨테이너 30개를 놓아 미술관으로 꾸민다.

상하이엑스포 때 한국관을 디자인한 강익중 작가가 외부 디자인을 맡았다. 내부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회화 작품 16만 점을 전시한다. 바위정원과 미인정원 등에 들어간 자연석 2만5000t은 광양~목포 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동안 땅속에서 캐낸 것들이다.

또 담양~함양 간 88고속도로로 확장공사장에서 뽑아온 메타세쿼이아 등 나무 7340주도 박람회장 조성에 유용하게 쓰였다. 수목 구입비 97억원과 자연석 구입비 25억원 등 모두 131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박람회 교통 대책도 마련됐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연향호반아파트~체육관 사거리 개설공사(1700m), 오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391m), 남승룡길 확·포장공사(528m)

를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1월 35회, 총 6495회의 공연, 체험, 전시 등의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매주 주말 동천공연장에서 열리는 상설주제공연을 비롯해 계절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 공연,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세계 최초의 다리미술관을 표방한 '꿈의 다리'의 모습.

## 세계 정원 전시... 1862년 런던을 시작으로 150년간 이어져

### 정원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이색 정원을 전시하는 정원박람회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난 1862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reat Spring Show'를 시작으로 정원박람회는 15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초창기 영국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정원박람회가 인기를 끌었고, 점차 미국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됐다.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열린 정원박람회는 1990년 열린 일본 오사카박람회이며 이후 중국, 태국, 대만 등에서 열린 적이 있다. 국내에서 국제정원박람회란 명칭으로 열리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꽃박람회는 2009년 안면도에서 열리기도 했다.

오사카 박람회에는 2300만명이 방문했고, 10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런던박람회는 지금도 매년 15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박람회의 형태는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단기간에 열리는 '헬스플라워쇼'가 대표적이며 독일은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연방정원박람회(BUGA)와 10년에 한번씩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IGA)가 유명하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독일의 국제정원박람회와 유사한 10년단위로 열리는 플로리에이드가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정원박람회 조감도



**사랑해  
사랑소망**

2013년에는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쉽게 전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한해도 희망차고 새로운 한해가 되십시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립니다**